

박행보 작 '금강산'



허백련 작 '목포도'



'의재毅齋, 산이 되다-연진회로 이어진 의재 정신과 예술' 전  
10월20일까지 시립미술관... 11일 개막식, 19명 작가 40여점 전시

# 의재 허백련과 연진회를 조명하다

의재(毅齋) 허백련(1891~1977)은 남종화의 마지막 거목으로 한국 화단에 큰 족적을 남겼다. 그가 속했던 연진회 회원들은 호남 화맥을 일구며 다채로운 작품 활동을 통해 의재의 정신을 이어가고 있다.

매년 진행되는 호남미술아카이브 프로젝트를 통해 호남 지역 미술사를 정리하고 복원해온 광주시립미술관(관장 전승보)이 이번에는 허백련과 연진회를 조명한다. 2019호남미술아카이브 '의재毅齋, 산이 되다-연진회로 이어진 의재 정신과 예술'전이 10일부터 10월 20일까지 제3·4 전시실에서 열린다.

의재와 연진회에 대한 본격적이고 집중적인 자료수집, 연구·전시인 이번 기획전에서는 허백련과 연진회가 배출한 작가 등 모두 19명의 한국화 40점을 만날 수 있다. 광주시립미술관 소장품과 함께 전북도립미술관, 의재미술관, 개인소장품 등을 망라하며 특히 최초로 공개되는 허백련 작 '목포도' (1932)가 인상적이다.

또 작품 뿐 아니라 의재와 연진회 작가들의 활동상, 인터뷰, 서간, 영상자료, 사진 등 아카이브자료가 풍성하게 소개돼 호남미술사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된다.

전시장에는 화가와 문인들의 왕래가 빈번했던 인문학

의 요람으로 차와 독서와 그림을 통해 정신을 수양해 간 허백련의 작업 공간인 '춘설헌'을 상징적으로 재현했다. 이곳에는 의재와 남경희·양계남 등이 합작해 그린 그림을 전시한다.

1938년, 남종화 부흥의 구심점이었던 허백련은 36명의 서화동호인들과 함께 '연진회'를 발족시켰다. 이당 김은호와 소정 변관식이 전조회원으로 이름을 올렸고 문필가, 경제인, 독립운동가, 정치인들도 참여했다. 이후 허백련 문화에 들어간 후기 연진회는 1960~70년대 국전(國展)에서 다수 수상하고 사군자에서 특히 강세를 보이는 등 활발한 활동을 펼치며 성장한다.

전시 작품 중에서는 1940년대 비단에 그린 허백련의 '설경', 신화풍의 모색을 보여주는 동강 정운면의 '산수' (1932)가 눈에 띄며 남종화의 서화사상을 계승한 화우로서 교류하던 초창기 연진회 서화가들의 격조 있는 사군자 작품도 전시됐다.

후기 연진회 작가들의 작품도 만날 수 있다. 당시 작가들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전통 수묵에 대해 고민하며 현대화를 위해 전통에 뿌리를 두되 주제와 재료, 색채에 있어서 변화를 꾀하는 등 다양한 변화를 모색했다. 육산 김옥진, 희재 문장호, 금봉 박행보, 녹설 이상재를 비롯, 동작

김춘, 오죽헌 김화래, 인재 박소영, 월야 양계남, 화정 이강술, 계산 장찬홍, 우현 최덕인, 직현 허달재 등이 대표적으로 이번 전시에서는 그들의 70년대 작품과 변화한 근작들을 만날 수 있다.

다양한 아카이브 자료도 눈에 띈다. 창씨개명을 하지 않은 민족주의자 허백련은 우리 시대에 추구해야 할 이념으로 '홍익인간(弘益人間)'을 주장했으며, 민족혼을 되살리기 위해 단군신전 건립을 추진했다. 당시 많은 사람들에게 써서 나누어 준 '弘益人間' 글씨와 함께 삼애정신(三愛精神·愛天, 愛土, 愛家)을 바탕으로 농촌 부흥운동을 한 시기의 작품 '日出而作' (1954)이 전시된다.

그밖에 허백련이 설립한 삼애학원(1947)은 1953년 '광주농업고등기술학교'로 정식 인가를 받고 30여 년간 농촌 지도자를 양성했다. 당시 학생들이 쓴 정성어린 안부 편지도 전시됐다. 또 스승의 한결같은 모습을 기억하는 양계남, 이강술, 장찬홍, 최덕인 등 제자 작가들의 인터뷰를 통해 의재의 삶을 만날 수 있다.

개막식은 11일 오후 5시 열리며 8월21일 오후 3시에는 미술관 세미나실에서 이선옥 의재미술관장이 '삶의 본이 된 스승, 의재 허백련'을 주제로 강연한다. 문의 062-613-7125.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 '고려난파선, 해남청자를 품다'

해양문화재연구원 특별전, 10월13일까지 해양유물전시관

최남단 땅끝 '해남'은 서해와 남해로 바닷길이 열려있는 천혜의 땅으로 고려 시대에는 최대 규모의 청자 생산지였다. 11세기부터 13세기까지 300여 년 동안 명맥을 유지했는데 소박한 멋의 녹갈빛 그릇은 당시 크게 유행했다.

고려시대 해남청자를 볼 수 있는 특별전이 열려 눈길을 끈다.

문화재청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소장 이귀영)는 특별전 '고려난파선, 해남청자를 품다'를 9일부터 10월 13일까지 해양유물전시관(목포)에서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지난 40여 년간 바다와 육지에서 이뤄진 해남청자 발굴조사와 연구 성과를 나누는 자리로, 해양문화재연구소는 1983년부터 지난해까지 완도, 군산 십이동파도, 진도, 영광 낙월도 해역 등에서 해남청자 4만 여점과 난파선 3척(완도선, 군산십이동파도선, 태안 마도1호선)을 인양했다.

전시는 모두 4부로 구성됐다. 각각은

'서남해 바닷길, 해남청자를 품은 고려난파선', '해남청자의 바닷길 유통', '고려의 소박한 그릇, 해남청자', '고려 사람들의 삶에 스며든 해남청자' 등의 주제로 나뉜다. 1부와 2부에서는 '군산 십이동파선'과 완도선, 태안 마도 1호선와 세 척의 고려 난파선에서 출수된 2500여 점을 선보인다. 이어 3부와 4부에서는 해남지역을 비롯한 시흥과 용인, 인천, 부산지역 청자가마터 그리고 고려시대 생활유적과 무덤, 제사유적 등 생산지와 소비지 유적에서 출토된 해남유형의 청자를 소개한다.

한편 1992년과 2017~2018년에 이뤄진 발굴조사로 해남청자와 관련된 가마터와 유물이 출토됐으며 진산리 청자요지(사적 제310호)와 해남화원면청자요지(전라남도 기념물 제220호) 등 가마터들이 문화재로 지정됐다. 문의 061-270-2054.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세계수영대회기념 '아름다운 광주전'

서예협회 광주지회 11~17일 시립미술관 금남로분관

한국서예협회 광주지회(회장 김국상)가 주최하는 '아름다운 광주전'이 11일부터 17일까지 광주시립미술관 금남로분관에서 열린다.

2019 세계수영선수권대회를 기념해 열리는 이번 전시에서는 다양한 전통 한글·한문 서예와 함께 평화, 인권 등 광주를 상징하는 글귀와 그림을 담은 작품을 선보인다.

전시에는 고경숙·기명혜·서동국·위오남·이용선·이준형·임재규·정찬홍·전명옥·정명자·조병춘·하태암·탁영화·한상운 등 55명의 회원들이 참여했다.

회원들은 김연거의 '소쇄원', '진각국사시', '면양정 송순 시' 등을 적은 정통 서예 작품과 함께 먹의 농담을 살려 은은한 맛을 전하는 문인화, 물살을 가르치는 수영선수의 모습과 행사 캐치프레이즈인 '평화의 물결 속으로' 등을 소재로 한 다양한 작품을 선보인다. 오프닝 행사 13일 오후 4시. 문의 062-222-8053. /김미은 기자 mekim@



김국상 작 '평화의 땅 광주'

## '창극 심청'

한국판소리보존회 광주지부  
14일, 염주체육관 야외무대

(사)한국판소리보존회 광주지부가 오는 14일 오후 5시 30분 염주체육관 야외무대에서 '창극 심청' 무대를 마련한다.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 기념 특별공연으로 기획된 이날 공연은 한국판소리보존회 광주지부 '제11회 판소리 유파발표회'이자 '제13회 정기발표회'로 열린다.

이날은 보성소리 강산제 '심청가'를 창극으로 꾸민 공

연이 펼쳐진다. '아름다운 금수강산'을 시작으로 심봉사가 딸을 그리워하는 '타루비 대목', '화초타령', '방아타령', '심봉사 눈 뜨는 대목'을 공연한다.

연출·작창을 맡은 서암전통문화대상 수상자 주소연 명창의 사회로 진행되며 무안군립국악원 김다정(심봉사역)씨, 광주시립창극단 이미소(심청역)씨 등 14명이 출연한다. 유세운(아쟁)·임황철(대금)·윤민석(피리)·박병준(고수)도 함께 무대를 꾸민다.

1933년 설립된 조선국악연구회의 후신인 (사)한국판소리보존회 광주지부는 판소리의 전승 및 보급발전에 기여하고자 판소리 및 민속예술의 전수교육, 연구발표회(창작포럼), 문헌정리·발간, 민속음악 악보 발간 등 사업과 전통문화예술체험, 문화 복지 신장 등을 진행 중이다. 무료 관람. 문의 010-4153-0895. /유연재 기자 yjyou@



SINCE 1982

각국 보청기 전문 A/S센터 상표등록 제2549335호

2015~2019 대한민국소재상 소비자만족부문 [5년 연속] 수상  
2016 미국 리스케이프스 CES 혁신기술포럼 [혁신기술상] 수상  
2017 미국 빅 이노베이션 어워드 [혁신상부문] 수상

“인터넷 검색창에 **국제보청기** 를 보세요”

# 국제보청기

-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종로 5가역 1층 02) 765-9940

**순천점** 중앙시장 앞 061) 752-9940

# 2019 광주FINA세계수영선수권대회

성공 개최 기원 **객실 25% 할인 판매**



행사기간 **2019년 7월 10일 ~ 28일**  
예약/문의 062-228-8000 / 221-4114

www.shinyangparkhotel.com